

우리 종단을 말한다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 “수미산문 정통 계승한 목조선 수행”

대한불교조동종(종정 지명)은 목조선종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이 1989년 5월 27일 중창했다. 간화선 일찍이 한국에서 여러의 지견이 담긴 목조선 수행법으로 불교를 중흥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조동종의 총본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청련사다. 석가세존의 근본 교리를 높이 받들어 ▲직지인심(直指人心) ▲지관타파(只管打坐) ▲즉심시불(即心是佛)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함을 중지로 한다. 자주성과 목조선종을 종풍으로 수행에 매진하는 본 종단의 역사는 1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산양개 선사는 859년 목조선종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조동종을 개창했다. 국내에서는 이엄진철 선사가 신라 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계승했다. 이를 기념해 중국 소림사 정각 앞에는 입실건담비가 세워져 있다. 한 개의 종단이 정통 법통을 대거 승계한 한국 불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본 종단은 1100여년 전 동산양개 선사의 혜명을 이은 소중한 법통을 영구보존·발전시키기 위해 450여 스님을 비롯한

### 859년 동산양개 선사가 중국 조동종 개창 ‘바른 조동종 역사관 수립’에 전 종도 매진

엽 중국 조동 제2조 운거도응 선사 문하에서 목조선종 수선하고, 고려 태조 5년(932년) 황해도 수미산에 광조사를 창건했다. 한국불교 최초로 목조선종을 위주로 하는 수미산문(彌山門)의 탄생이다. 수미산문은 구산산문 중 가장 늦게 시작됐지만, 고려 태조 당시 전성기를 맞은 후 일연·만해 등에 의해 현대까지 자취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불교조동종은 1994년 7월 16일 초대 종정인인 운파 종정스님 등 60여 스님이 중국을 방문해 단절된 법맥을 잇고 조동종 본류의 정통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송산 소림사의 조동 제44조 청심소회 선사를 수계법사로 모시고 입실건담(入室建幢), 법맥계보를 수여받아 서천 제82조·동토 제55조·조동 제45조의 확고한 정통 조동종 법맥을

전 종도가 ‘바른 조동종 역사관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2000년 8월 청련사 대형 오석에 항렬을 각인하는 장엄불사를 회향하고, 2006년 10월에는 중국 동산보리선사에 ‘양개 존자 사리탑전 한중 양국 조동종 법승 영구 우호 돈독비’를 불사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부처님 진신치아사리 친견을 위해 중국 조동종 사찰을 순회하며, 현지 대법회를 봉행했다.

앞으로 본 종단은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경기도 이천시 연화정사 인근에 새로운 총본사 및 교육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종단의 임지를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목조선종 유지·발전에 만전을 다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무원 (02)2091-0408 정리·김진성 기자

## 경로잔치 열어 지역화합·효행 up!

### 호국불교효예종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



2007년 열린 '제4회 석문사 경로잔치'에서 혜전 스님이 지역 어르신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남모르게 매년 2000여명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여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그 주인공은 호국불교효예종 청원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 스님은 5년째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복지관에서 경로잔치를 열어 왔다. 오는 10월 25일에도 제5회 석문사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스님이 매년 대규모 경로잔치를 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혜전 스님은 “어머니의 원력 덕분”이라고 답한다. 스님은 “5년 전 주지로 부임할 때 어머니 칠순잔치를 맞았다. 그때 어머니께서 오히려 500만원을 보내서, 당신의 칠순 잔치 대신 동네 어르신을 경로잔치를 열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스님은 깨달은 바가 있어 지역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적극 나섰다. 미혼모 아이 돌보기와 불우가정 장학금 지원, 김씨 5회째를 맞는 석문사 경로잔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칭찬은 자자하다.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보살 같다. 스님 같은 분들 덕분에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원군에서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자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지자체 단체장들도 참석 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혜전 스님은 “누가 돌봐주지도 않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누군가

립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단체로, 효예종 전국 240개 사찰에서 효와 예를 실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별써 5회째를 맞는 석문사 경로잔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칭찬은 자자하다.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보살 같다. 스님 같은 분들 덕분에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마음이 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원군에서도 이러한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자 지원을 시작했다. 이번 경로잔치에는 지자체 단체장들도 참석 할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사고 있다.

혜전 스님은 “누가 돌봐주지도 않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누군가

소외계층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들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씀을 흐린다. “먹고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우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스님은 “내 몸이 움직이고 다리가 걸을 수 있는 날까지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길 생각한다. 출가해 내 몸을 움직여 소외계층을 돕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석문사로 찾아가면 스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 있기 때문이다. 보시행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스님에게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본다.

노덕현 기자·혜철 총정리사장

## 태고종 총무원장 퇴진 놓고 갈등

### 원로 “수습대책위 구성”-총무원협 “즉각사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내년 3월 이전 퇴진’ 발표(10월 11일)를 둘러싸고 원로회의와 전국시도교구 총무원장협의회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태고종 원로회의(의장 일우)는 10월 7일 회의를 열고 “평생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해 전승관 건립불사 마무리와 조계종과의 분원사 문제 등을 해결하는대로 퇴진하겠다는 운산 스님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원로회의가 종단 안정과 기강확립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결의했다.

원로회의는 또 “총무원은 종단 현안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총회의장 인공·중앙사정원장 월은 스님)를 3부 기관장이 합의하여 구성하고 종단의 중요사항을

처리토록 하라”며 권고했다.

한편, 전국시도교구총무원장협의회(회장 대은)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4개 교구 중 20개(위원 7명) 교구총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운산 스님의 즉각 사퇴와 원장 직무정지, 사퇴 거부시 중앙총회의 탄핵추진,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부채의 전액상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산 스님 퇴진 때까지 교구총무원 전체의 총무원장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운산 스님의 거취문제는 비리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 보다는 총무원장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분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성우 기자

### 최초의 한글책 ‘용비어천가’ 강원서 첫 발견

#### 한글날 기념, 원주 고관화박물관 공개

최초로 한글로 쓰인 <용비어천가>가 강원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돼 눈길을 끈다.

태고종 원주 명주사 고관화박물관(관장 한선화)은 최근 입수한 효종본 <용비어천가> 1,2권(1659년경, 36.8×25.5cm)을 10월 8일 공개했다.

세종본, 광해본, 효종본, 영조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용비어천가>는 서울대 규장각 등 국내 소수기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고관화박물관이 지난해 발굴해 유일하게 소장 중이다.

<용비어천가>는 국한혼용문으로 표기된 가사 125장과 한문 주석문에 나오는 한글 표기의 고유명사 등 300여 단어가 수록돼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유물



을 감정한 남관회 교수(경북대 문헌정보학과)는 “책이 훼손이 심한 상태지만 한국에 몇 권 남지 않은 효종본으로 초기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고관화박물관의 <용비어천가> 소장품 강원도는 흥천 수타사의 <월인석보>와 함께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한글책을 모두 소장하는 지역이 됐다.

조동섭 기자

### 대한불교미타종 외국인긴급지원센터 개설

(재)대한불교미타종 권성우 재단 이사장은 10월 2일 총무원내에 외국인 긴급지원센터를 개설했다. 이 센터는 갑자기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나 불의의 사고나 긴급 도움

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무료수식을 제공하고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게 된다. (02)2242-1049

김성우 기자

### 을릉 관음성지 해도사 생전예수재 봉행



천태종 해도사(주지 비룡)는 10월 5-8일 영산재 및 생전예수재 천도법회를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지난 5월 해수관음부처님을 봉안한 비룡 스님은 “동해의 관음성지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법회를 개최했다”며 동참 대중에 감사사를 표했다.

### 대한불교법회종

#### 정화추진위 주장에 반박

대한불교법회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은 10월 6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사)법회종정화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총무원장 비리폭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혜륜 스님은 “사욕을 위해 총무원을 흠집내고 비방한 정화추진위 배후에는 ‘교현사 남골당’ 관련 수백억원의 이권이 개입된 세력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행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02-2004-8200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 성인병(당뇨·고혈압) 예방

# 첫서리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금강선원 뽕잎차는 초중스님계에서 구중구포의 전통방식으로 정성들어 만들어 맛과 향이 탁월합니다.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는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 금강선원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흰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금강선원 뽕잎차의 수익금은 선원불사와 범당불사에 회향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 220,000원 (1인용 보급형), 580,000원 (1인용 고급형), 480,000원 (2인용 보급형), 680,000원 (2인용 고급형)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괄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